

“11월 21일부터 한 달 먼저 찾아오는 따뜻한 겨울”

화순군문화관광재단,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vol.2’ 개최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구복규)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화순읍 남산공원과 고인돌 전통시장 일대에서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vol.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달 먼저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난해 첫 개최 당시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으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지역 대표 겨울 축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행사 기간에 남산공원 전역은 반짝이는 트리와 조명 장식으로 꾸며져 도심 속 겨울정원을 연출한다. 화순군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크리스마스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확이다.

남산공원 군민회관 주차장 일대에 조성되는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마켓’은 축제의 중심 공간으로, 크리스마스 소품과 장식품, 공예품, 카드를 비롯해 스노우볼과 트리 장식, 산타 인형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된다.

마켓에는 화순 지역 셀러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셀러들이 함께하며, 판매 품목의 60% 이상이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으로 구성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화순 지역 푸드트럭이 참여해 따뜻한 겨울 음식을 선보이고, 빵쇼·바베큐·감바스·골라시 등 세계 각국의 대표 겨울 간식도 맛볼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인돌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와글와글 밤시장 - 세

번째 밤’이 함께 열린다. 11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시장 상인과 플라마켓 셀러, 먹거리 부스가 함께 참여해 활기찬 야시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는 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지고,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들이 겨울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전통시장과 축제 공간을 연계한 이번 구성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축제의 밤을 더욱 빛낼 ‘미리미리 공연 프로그램’은 남산공원 야외무대와 적벽조형물 앞 소무대에서 열린다. 합창, 재즈, 오케스트라, 마술, 연극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이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지며, 버블쇼와 댄스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인과 상인, 청년 셀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화순/김중환 기자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 빛나 ‘대상’ 수상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 제작, 지역 맞춤 기금 사업 호평

완도군은 지난 13일, 서울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SBS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시상식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응모, 10월에는 본선에 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심사와 함께 모금 방법, 기금 사업 운영,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관한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완도군은 전국 최초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누리집(wandolove) 제작으로 능동적 홍보 및 완도해양치유센터 연계 지역 맞춤형 기금 사업 발굴 등을 발표해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역 특산품(전복, 전복 가공식품 등) 활용형 답례품, 어민을 위한 해양

활동 안전 구명조끼 답례품 개발 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올해 전국 대회서 우승을 2번 차지한 완도 BC 유소년 야구단을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해 조기에 기부 목표액을 달성해 야구단 운영에 힘을 보탰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기부자들에게 연말 감사장을 보내고 완도 고향 사랑 서포터즈를 통해 평생 기부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자들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순천시, 전 시민 1인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 2회 추경 편성

여유재원 67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정변동 대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9,450억 원(13.3% 증)을 편성해 17일 순천시의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2,255억 원(16.1%)이 증액된 1조 6,269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0.8%)이 증액된 3,181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이 포함됐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 증대와 예산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

는 즉시 12월 중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 시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여유재원 67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향후 재정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민생회복

지원금 580억 원 ▲생계급여 18억 원 ▲청년월세특별지원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4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 원 ▲아동수당 지원 6억 원 등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직접지원금 1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억 원 등이 편성됐고,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신대천 횡단 교량 리뉴얼 19억 원 ▲팔마 유소년축구장 개보수 공사 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재정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탁금 676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출금 2억 5천만 원을 포함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구례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출생에서 노년까지 구례군민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한눈에

전남 구례군은 군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례군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임산·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7개 분야, 17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분야별 색인을 포함하여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 정책의 지원 내용은 물론 신청방법과 문의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

특히 모바일북 형태의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함과 동시에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실용성과 휴대성을 강화했다.

가이드북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며, 구례군의 인구정책 안내 및 홍보를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가이드북은 생애 단계별로 군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실용적인 자료”라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제공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진도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추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진도군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 and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진도군은 체납액 정리에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 재산 조회와 필요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며, 필요시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지할 예정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도군도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062-525-9775

곡성군, 2025년도 산불대응 2관왕 쾌거

전남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지상진화부문 1위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산불 지상진화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 지상진화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전남산림자원 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상진화와 통합지휘 2개 부문의 실전 대응 능력을 평가했다.

곡성군은 지상진화부문에 곡성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0명이 출전해 산불진화차 전개부터, 기계화시스템 운용, 발화지점 도달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수행했다.

특히 초기대응의 신속성, 장비 운용의 정확성, 표준절차 이행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곡성군은 지난 10월에도 전라남도 산불예방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2025년도 산불 대응 2관왕의 영예를 안은 셈이다.

한편, 곡성군은 평소에도 실전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진화 절차를 반복 숙달하고 장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꾸준한 준비가 이번 대회에서 정확한 진화 동작과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팀워크 완성도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는 초고속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진화헬기대를 비롯해 산림청 고성능진화차와 공중진화대, 곡성군 산불진화차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아울러 경찰서, 소방서, 한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계적인 산불 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곡성/이경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